

'재도약' 노리는 이상혁, 다이아몬드 파이널 2연패 도전

25일 실레지아·30일 로마 대회 9월 브뤼셀 파이널 진출 노려

대회에서 받은 상처는 또 다른 대회에서 치유한다. 파리 올림픽에서 7위에 머물러 눈물을 흘렸던 이상혁(28·용인시청)이 다시 된다.

이상혁은 25일(현지시간) 폴란드 실레지아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연맹 2024 다이아몬드리그 대회에 출전한다.

13일에 귀국한 이상혁은 곧 국내에서 훈련을 재개하고 다음 주에 유럽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25일 실레지아, 30일 이탈리아 로마 다이아몬드리그에 출전해 포인트를 쌓은 뒤, 9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펼쳐지는 2024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 출전해 2연패를 달성하는 게, 이상혁의 새로운 '단기 목표'다.

이상혁은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 디펜딩 챔피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처가 더 깊다.

이상혁은 지난 11일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7로 7위를 한 뒤,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메달 후보로 거론됐고, 한국 육상 트랙&필드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터라, 예상외의 성적표에 허탈감을 느꼈다.

이상혁은 "나보다 더 고생한 김도균 감독님을 생각하면 더 눈물이 난다"며 "나는 감독님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면 되지만, 감독님은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헌신했다"며 평평 울었다.

하지만, 김도균 용인시청 감독(한국 육상수직도약대표팀 코치)은 "이상혁이 정말 고생했다.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쉽지만, 이상혁이 내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감독은 이상혁이 무기력하게 지내길 바라지 않았다.

파리 올림픽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다른 경기 출전을 준비했고, 이상혁도 다이아몬드리그 경기에 출전하며 마음을 다잡기로 했다.

2024년 다이아몬드리그는 14개 대회에서 쌓은 랭킹 포인트로 순위를 정해 '챔피언십' 격인 15번째 브뤼셀 파이널 대회에서 최종 승자를 가린다.

남자 높이뛰기를 편성한 대회는 4월 20일 사면, 27일 중국 쑤저우, 7월 12일 모나코, 7월 20일 영국 런던, 8월 25일 폴란드 실레지아, 8월 30일 이탈리아 로마 대회까지 총 6개다.

각 대회 1~8위는 8~1점의 랭킹 포인트를 받는다. 남자 높이뛰기에서는 랭킹 포인트 상위 6명이 파이널에 진출한다.

파리 올림픽 준비를 위해 이상혁은 올해 다이아몬드리그 경기에 단 한 번만 출전했다.

7월 12일 모나코 대회에서 이상혁은 2m28을 넘어 3위에 올랐다. 현재 다이아몬드리그 랭킹 포인트 6점으로 공동 9위다. 랭킹 포인트 9점으로 6위를 달리는 왕전(중국)과의 격차는 3점이다.

이상혁이 25일 실레지아, 30일 로마에서 총 10점 정도를 추가하면 무난하게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상혁은 8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6위(2m29)에 그친 아쉬움을 그해 9월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2m35)으로 달랬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 출전한 한국의 이상혁이 2m 31cm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관중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은 물론이고, 파이널에 출전한 것도 한국 육상 최초였다.

파리 올림픽에서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지만, 이상혁은 2022년 세계실내선수권 우승(2m34), 실

외 세계선수권 2위(2m35), 2023년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2m35) 등 빛나는 이정표를 세운 한국 육상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

이상혁은 파리 올림픽에서의 상처를 딛고, 다시

뛰기로 했다. 올해 남은 다이아몬드리그, 2025년 도쿄 세계선수권, 2026년 아시안게임, 2027년 베이징 세계선수권 등을 거치면 다시 2028년 올림픽(로스앤젤레스)이 열린다. /연합뉴스

수피아여중, 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3연속 우승

수피아여고 준우승

수피아여중이 '2024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3연속 대회 정상에 올랐다.

지난 13일 강원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중부 결선에서 수피아여중은 봉의중을 89-51로 꺾고 우승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앞서 수피아여중은 8강에서 온양여중을 94-44로, 4강에서 수원제일중을 75-61로 제치며 결승에 올랐다.

이번 우승을 포함해 올시즌 치른 전국대회 4개를 모두 휩쓴 수피아여중은 전국 최강 농구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수피아여중은 지난 3월 열린 '제61회 춘계 중등농구연맹전'과 5월에 치러진 '2024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 대회',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한편 수피아여중 농구선수단은 오는 18일 일본



수피아여중 농구부 선수들이 13일 강원 양구문화체육관에서 마무리된 '2024 한국 중·고 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수피아여중 제공>

오카야마현으로 떠나 '제28회 한-일 청소년스포츠 교류 대회'를 통해 일본 선수단과 친선 경기를 펼친다.

이번 대회 여고부에서는 수피아여고가 준우승

을 차지했다. 수피아여고는 준결승에서 동주여고를 상대로 81-63으로 승리했고, 14일 열린 숙명여고와의 결승에서 60-84로 패하며 여고부 2위를 기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김시우 "PGA 최종전 페덱스컵까지 가겠다"

세인트주드 앞두고 각오 다져

미ק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PO)에 나서는 김시우(사진)는 상위 30위 이내만 출전할 수 있는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까지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시우는 15일 PGA 투어를 통해 "PO에 나온 만큼 남은 3개 대회에서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시우는 16일부터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에서 열리는 PO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 달러)에 나선다.

정규시즌 페덱스컵 랭킹 포인트 상위 70명이 출전하는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 결과를 포함해 상위 50명만 PO 2차전 BMW 챔피언십에 나설 수 있으며, 이후 다시 30명만 추려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을 치른다.

지난해 투어 챔피언십까지 생존해 공동 20위로 마친 김시우의 현재 페덱스컵 순위는 38위로, 이번 대회와 BMW 챔피언십에서 순위를 끌어 올려야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다.

김시우는 "시즌을 시작하면서 항상 목표는 투어 챔피언십까지 뛰는 것이었다"면서 "지금 38위지만, 포인트가 큰 2개 대회에서 톱10에 들어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면서 투어 챔피언십 출전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즈음 날씨가 더운데, 경기 중에도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도 잘 섭취해 체력을 잘 관리하려고 한다"면서 "체력 관리와 집중력 유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시우는 '메이저 대회 1개 우승'과 'PO 전부 우승' 중에 어느 것을 더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선 "골프 선수를 하면서 메이저 대회 우승이 항상 꿈이었다"면서 "메이저 대회 우승이 더 값질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 김시우 매화장사 등극

여자부 단체·개인전 입상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이 삼척장사씨름대회에서 활약했다.

구례군청 김시우가 최근 삼척체육관에서 열린 '2024 민속씨름 삼척장사씨름대회' 여자부 경기에서 매화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사진>

김시우는 강하리(괴산군청)와의 결승전 첫 번째 판에서 밀어치기로 한 점을 따냈고, 두 번째 판에서 잡채기와 되치기로 2-0 승리를 거뒀다.

국화급 이세미와 무궁화급 최희화도 각 체급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구례군청은 7판 4선승제로 진행된 단체전에서

는 3위를 기록하며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여자부 단체전 첫 번째 경기에서 안산시청을 4-1로 꺾은 구례군청은 영동군청에 3-4패로 지면서 3위에 머물렀다.

김승환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 감독은 "김시우가 이번 대회 전에도 독한 감기로 고생을 했다. 김시우가 우승 후에 '저는 시합 전에 좀 아파야 힘이 빠진 상태로 경기를 잘하는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더라"며 "올해 3관왕에 오르면서 '최강' 수식어가 붙은 안산시청을 이기면서 단체전 우승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3위에 그쳐 아쉽다. 좋은 결과 내준 선수들에게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GAC 광주국제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
피아노 부문
 일시 : 2024-08-16(토) ~ 9.15(토)
 광주국제음악콩쿠르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아노다
 일시 : 2024-08-16(금)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